

文-李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후퇴해선 안돼” 공감대

이재명 민주당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주의 후퇴’ 등 尹 정부 우려
“이태원 참사 관련 진정치유 필요
민주당, 민생경제 해결에 최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며 함께 ‘민주주의 후퇴’ 등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게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4개월여만에 예방했다. 이 대표는 사저 앞을 찾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사저 안으로 들어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환담을 나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나눈 주요 현안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정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다”며 “요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 중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으로 우리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으로 향해 당에 상징적인 곳을 찾고 인물들을 예방하며 당 내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일) 오전부터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

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후 이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이번에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 때 봉하마을에서 처음 만났고 전당대회 이후인 지난해 8월 29일 신임 지도부들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신년 일정이 당 지도부가 신년 때 으레 하는 참배와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출

석을 통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로 전 정부의 주요 안보라인을 소환 조사하자 이에 따른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부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소위 말해 주류의 정점에 있는 분은 늘 포용적·통합적·확장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고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행보 자체가 확장적으로 (인사를) 만나고 상임고문들과 이야기하고 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말고 다른 의원들을 보직에 등용하는 것들이 당 대표나 대통령이 해야 할 스타일”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당권주자 ‘수도권 출마론’에 주호영 “자해행위”

윤상현 “尹 핵심관계자 논쟁보다
‘수도권 공동선언문’에 합의해야”
제안에 안철수의원 “공감” 화답

주호영 “지역구 옮기는건 예의아나
필요하다면 몇군데 전략적 선택”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말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수도권·MZ세대론’을 제시한 이후 불거진 논란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포문은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 대표 선거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 발표를 제안한 윤 의원은 “누가 대통령 핵심 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보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검증해야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서울 출마를 선언하라. 적어도 당 대표 후보라면 언제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은 행보였다.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화답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내년 총선이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다”는 입장과 함께 윤 의원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인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이라며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

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의 화답에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 작성을 요청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수도권에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합의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앞장서는 인물인지 함께 검증해보자. 윤석열 정부 연대보증을 위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을 협의·작성 및 발표에 대해 모든 후보께서 함께 해 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론’을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는 당 대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은 위험한 것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우리가 지난번 선거 때 지역구를 많이 옮기는 바람에 오히려 자해 행위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정치인들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사랑을 받는 것인데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몇 군데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구를 모두 옮겨라, 수도권으로 출마하라, 이것은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 교황청대사관에 마련된 교 베네딕도 16세 명예교황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 대통령

베네딕도 명예교황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95세의 나이로 선종한 베네딕도 16세 명예교황 조문을 위해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찾아 “베네딕도 명예교황을 추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베네딕도 명예교황을 추모한 뒤 주한교황청대사인 알프레드 슈이레브 대주교에게 “베네딕도 16세가 대한민국의 앞날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다”며 “이제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이레브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저희에게 큰 선물”이라며 “고인의 생전 바람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진리와 사랑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故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민간주도 기조 유지, 외교·통상 등 촘촘하게 뒷받침”

》1면 ‘우리경제 성장’서 계속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며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라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

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다”며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지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 덕분에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규제개선과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래 해를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온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행사”로, 경제계 리더들이 모여 새해의 정신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한상외와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